

남편을 고소한 아내



안 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Q: A는 C회사의 대주주이자 이 회사 대표이사인 B의 아내로서, 물심양면으로 B를 도와 C회사를 전도유망한 회사로 키워냈다. C회사는 성장가도를 달렸고, B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중 A는 B가 C회사의 직원 D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결국 B에 대한 배신감이 A의 감정을 폭발하게 했다. A는 C회사의 대주주로서, B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을 C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음, C회사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B가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후 A는 B가 외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A가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B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위 사례는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고소인과 의뢰인이 같았던 사건을 각색한 사례이다. B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결론부터 말하면, B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A가 B를 고소한 횡령죄나 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 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

기 때문에, A의 B에 대한 오해가 풀려 A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B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B가 범한 범죄행위의 죄질이 가볍고, 초범인 경우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제62조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가 가능할 여지는 있다.

최근 고소사건이 많아졌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와 같이 민사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상대를 압박하여 변제를 받을 요량으로 또는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을 요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위 사건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친고죄와 반의사 불법죄를 제외하고는 위 사례와 같이 시작은 고소인의 의지대로 가능했지만, 멈추는 것은 고소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리를 잘못 구성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불기소처분이 후속 고소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B가 A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B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기에 A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B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이미 C로부터 변제를 받아 다 써버리는 바람에 A는 C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현재 B는 돈이 없다. A는 B를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서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 1442 판결 참조).

실제로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고소인이 필자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횡령죄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성이 있다. 다만,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을 수 있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참조),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에 불과할 경우나(대법원 96도771 판결 참조)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신고한 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대법원 93도 3445 판결, 2006도558 판결, 2013도6862 판결 각 참조). 이처럼 고소는 사법정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중한 검토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LG하우시스, 나라사랑 공간나눔 아이디어 공모전

LG하우시스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청소년들의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제3회 나라사랑 공간나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 학생들과 (오른쪽 두 번째부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 LG하우시스 이교목 상무, 국가보훈처 이성준 보훈선양국장, LG하우시스 모델 배우 이서진 등이 무궁화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농심, 백혈병 소아암 환우 위한 사랑의 협력 진행

농심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에서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위한 '사랑나눔 협력'을 진행하고, 협력증 100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농심이 올해 초부터 펼치고 있는 '백혈병 소아암 환우 지원 활동'의 일환이다. 농심은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백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력을 진행하게 됐다.

/농심



오리온, 국군의 날 맞아 선물세트 1만상자 후원

오리온그룹은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에게 오리온 제품을 담은 총 1억원 상당의 선물세트 1만 상자를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리온 이경재 대표(왼쪽)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김성진 중장(오른쪽)을 만나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국군장병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이번 선물세트는 '초코파이'를 비롯해 '포카칩', '태양의 맛 씬', '고래밥', '닥터유 에너지바'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로 구성됐다.

/오리온



SPC그룹, '파티를 배달합니다' 행사 실시

SPC그룹이 전국 60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파리바게뜨 제품과 상품권, 파티용품 등을 지원하는 '파티를 배달합니다!'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SPC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SPC해피버스데이파티' 6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아동센터 60곳에 상품권과 간식, 생일파티 소품을 담은 패키지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SPC그룹



한국암웨이는 '2018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

구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식품과학회와 중국영양학회, 태국 영양학회가 주관하고 식약처와 암웨이와 후원하는 '2018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식물영양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자해가 유행인 나라



기자 수첩

김현정
(정책사회부)

10대들 사이에서 자해가 유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자해'를 검색하면, 3만 2333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13일 기준으로 '#자해하는사람이나쁜사람은아닙니다'로는 5320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아이들은 손목과 손바닥, 허벅지 등을 커터칼로 긁는 모습이나 피가 맷힌 상처 등을 찍어 올렸다.

사진 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하나 나도 힘든데 왜 아무도 알아주나", "되는 일 하나 없다. 죽고 싶다"와 같이 힘든 상황을 토로하거나 "모

두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는 등의 자책하는 글이 덧붙여 있었다.

놀랍게도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이 끔찍할수록 '좋아요'와 '댓글' 수가 많았다.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의 자해 전파, 확산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정신의학에서 진료하는 비자살성 자해질환을 넘어 하나의 문화 신드롬처럼 전파되는 것 같은 우려가 들어 청원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구글 검색에서 만이라도 자해사진, 방법, 트윗을 막아달라고 했다.

한 전문가는 최근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사고 등의 이유로 외부 활동이나 체육 수업 등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최근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사고 등의 이유로 외부 활동이나 체육 수업 등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청소년 행복지수는 꼴찌이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1위인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라니 기가 차다.

/hjk1@metroseoul.co.kr

인사

◆ 한밭대 △5급 국제교류원(겸) 이진화 △6급 교무과 인승교 △6급 총무과 정상수 △6급 입학과 박지현 △6급 국제교류원 이현옥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양기범
◆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무 선임 준법지원부문장 조강영

부음

▲ 권오익씨 별세, 권기석(평화엔지니어링 전무)·기현·기섭(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부장)·기환·기선(현대엘리베이터 재경구매본부장)씨 부친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장지 문경 선산, (02)3010-2291
▲ 정귀자씨 별세, 김광숙(우리은행 대구동산동지점장)·현주(대신증권 정보화추진부 과장)씨 모친상 = 12일 오후 4시, 대구 카톨릭병원 장례식장 110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053)650-4444
▲ 박귀영씨 별세, 조승제(전 우리증권 본부장), 조혜제, 조순향, 조화숙, 조문경 모친상, 유석종(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 202호, 발인 15일 오전 8시

신증권 동래 WM센터 부장), 하정훈(주)돈마루 대표), 박일태 장모상 = 12일, 부산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51)607-2654
▲ 홍성숙씨 별세, 원일우(전 한양 사장)씨 모친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3151.

▲ 오재규 씨 별세, 오종광(경향신문 윤전국 윤전 1팀 과장)씨 부친상 = 13일 오전 2시 15분, 의정부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7시, (031)871-4444
▲ 백낙봉씨 별세, 백남인(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장)·남진(개인사업)·남수(한전 KPS 보령사업소 과장)·남주(신한은행 가락동 지점장)씨 부친상, 백영미(뉴시스 사회정책부 기자)·육기(옥천 이원초교 교사)씨 조부상, 임지훈(서울경제신문 정치부 기자)씨 빙고부상, 홍보름(대전 비래초교 교사)씨 시조부상 = 13일 오전 4시 20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 202호, 발인 15일 오전 8시